

健忘에 對한 文獻的 考察

柳錦龍* · 張奎台* · 金璋顯**

* 東國大學校 大學院 小兒科專攻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f Jianwang(健忘) : Forgetfulness(Amnesia)

Geum-Ryoung Yu · Gyu-Tae Chang · Jang-Hyun Kim*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A literature study was progressed for oriental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for Jianwang(健忘) : forgetfulness(amnesia). In oriental medicine, the reason of Jianwang(健忘) was congenital insufficiency(稟賦不足), meditational excessiveness(思慮過多), deficiency of heart(心虛), phlegm retention(痰飲), deficiency of kidney(腎衰), breakdown of the normal physiological coordination between the heart and the kidney(心腎不交), blood stasis(瘀血).

The method of medical treatment was invigorating vital energy and enriching the blood(大補氣血), invigorating the heart and nourishing blood(補心養血), dissipating phlegm and relieving mental stress(化痰寧神), regulating the spleen corresponds to earth(理脾土), invigorating the heart and

the kidney(補心腎), reinforcing the liver and the kidney(培肝腎), promoting blood circulation to remove blood stasis(活血祛瘀) and etc. Herbal medication was followed as those method. The prescription was commonly used as Guibitang(歸脾湯), Insuksan(仁熟散), Chunwangbosimdan(天王補心丹), Susunghwan(壽星丸), Samjohwan(蔘棗丸) and etc.

I. 緒論

健忘의 一般의인 意味는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記銘減退나 記憶減退를 말하며¹⁾ 韓醫學에서는 ‘喜忘’ 또는 ‘善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2,3)}.

健忘은 記憶이 精神 및 行動의 모든 또는 다른 부분과는 調和되지 않고 障礙를 받는 것으로, 疾患의 開始 前에 형성되었던 事件 및 그 외의 情報를 想起할 수 있는 能力의 障礙를 나타내는 경우와, 새로운 記憶을 形成하거나 認知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情報를 認知하는 能力의 障礙가 오는 경우가 있다. 아직 健忘의 生理學的 根據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發病과 臨床經過, 이에 隨伴되는 神經症狀 그리고 補助的인 臨床像을 나타내는 수많은 神經學的 疾患의 症狀이 될 수 있다⁴⁾.

이에 著者는 健忘에 대한 韓醫學의인 面을 살펴보고자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몇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病因과 病理

『靈樞·本神篇』에는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이라 하였는데 이를 풀어 설명하면 怒는 肝氣의 志이므로 역시 傷腎한다는 것이고, 肝腎은 子母로 氣는 上通하며, 腎은 志를 貯藏하는 곳이므로 志를 傷하면 意를 失하여 前言을 善忘한다는 뜻이다. 또 氣의 偏重에 의하여 『靈樞·大惑論』에는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留于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라고 하였는데, 下氣有餘란 上氣不足에 相對的인 것이지 下實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上에서는 心肺가 虛하고 營衛는 下에 留한 즉 神氣가 相固하지를 못하므로 善忘하게 되는 것으로 上의 陽衰의 徵兆이다. 또한 『素問·調經論』에는 “血并於下하고 氣并於上한 즉 亂하여 善忘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并은 偏勝으로 血이 下에 并하면 陰氣不升하고 氣가 上에 并하면 陽氣가 不降하여 陰陽이 離散하는 까닭에 神亂하여 喜忘한다는 것이다^{5,23)}.

『素問·診要經終論』의 “秋에 春分을 刺하면 병은 不已하고 惕然하게 하여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과 『素問·四時刺逆從論』의 “秋에 經脈을 刺하면 血氣가 上逆하여 善忘하게 된다.”는 것은 誤治로 인한 健忘의 發生을 언급한 것으로 心主脈하므로 잘못 經脈을 刺한 즉 心氣가 虛하여져 善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冬에 肌肉을 刺하면 陽氣가 竭絶하여 善忘하게 된다는 것은 冬에 夏氣를 刺하면 陽氣가 竭絶하고, 陽氣의 精이 養神하므로 陽虛한 즉 神衰하여 善忘한다는 것이다^{5,23)}. 또한 『素問·五常政大論』에는 “伏明之紀의 病은 昏하거나 或은 悲忘한다. 太陽司天에 寒氣下臨하면 心氣가 上從하여……熱氣妄行하면 善忘한다.”라고 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에는 “秋에 春分을 刺하면 病은 不巳하고 惕然하게 하여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였다^{5,23)}.

『巢氏諸病源候論』⁶⁾에는 “多忘은 心虛한 것이다. 心은 血脈을 主하고, 神을 藏하므로 만약 風邪가 血氣에 乘하면 陰陽이 不和하고 時相并膈하여 乍虛乍實하게 되어 血氣가 서로 亂하여서 心神을 虛損하므로 多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太平聖惠方』⁷⁾에는 “心은 精神의 本이고 意智의 根으로 항상 淸虛하여야 하며 昏昧하지 않아야 한다. 昏昧하면 氣가 濁하게 되어 神亂하여 心神亂하면 血脈不榮하고 氣血이 俱虛하게 되므로 精神離散하고 항상 憂慮가 많게 되며 耳目이 不聰明하고 心智가 不利하여서 健忘하게 된다.”고 하였다.

『聖劑總錄』⁸⁾에는 “健忘의 本은 心虛이다. 血氣가 衰少하고 精神昏憤하여 志가 動亂하여 多忘한다. 思慮하면 傷心하고 傷心하면 喜忘한다.”라고 하였다.

『嚴氏濟生方』⁶⁾에는 “무릇 健忘은 常常 喜忘하는 것이다. 脾는 意와 思를 主한다. 思慮過度하면 意舍가 不淸하므로 神宮이 不職하여 健忘한다. 治法은 理心脾하여 神意를 淸寧하게 하면 思를 得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醫學入門』¹⁰⁾에는 “怔忡이 오래되면 健忘이 된다. 心脾血少하며 神虧하여 淸氣不足하고 痰火와 濁氣가 上攻한 것이다. 老年에는 神이 衰하여 그 타고난 陰魄이 不足하다. 그러므로 大補氣血한다. 喜動하면 心氣가 散하여 不斂하여 지나치면 健忘이 된다.”라고 하였다.

『萬病回春』¹¹⁾에는 “健忘은 일을 하는데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有時無終), 말을 하는데 말머리와 끝을 알 수 없는 병이다. 精神이 短少한 것은 痰으로 인한 것이 많고, 心氣不足으로 인한 것도 있다. 恍惚, 多忘事하는 것은 思慮過度로 인한 것인데 心脾를 勞傷하여 忘事한다. 만일 痰迷心竅하여도 忘事한다. 健忘은 思慮로 心脾를 傷한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일을 잊게 된다.”라고 하였다.

『醫林撮要』¹²⁾에는 “憂思過度하여 心臆을 損傷하면 神舍不淸하여 遇事多忘한다. 그리고 過思하여 脾를 損傷하여도 또한 健忘한다.”라고 하였다.

『六科準繩』¹³⁾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氣를 稟하는 바는 서로 같지 않다.

氣의 淸한 것을 得하면 心의 知覺이 明하고 氣의 濁한 것을 得하면 心의 知覺이 昏하다. 心이 明한 것은 限量이 없으므로 비록 千百世가 지난 일이라도 한번 보면 終身도록 記憶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니 어찌 目前의 일을 잊어버리겠는가? 心이 昏한 것은 精神이 이미 短하여 目前의 일이라도 不待하여 傷心하므로 그 일을 능히 追憶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劉河間은 “水는 淸明하고 火는 混濁하다. 따라서 上智는 水와 같고 下愚는 火와 같으나 이는 稟質이 그러한 것이다. 稟質의 淸濁이 混하면 事物의 擾를 不耐하여 擾한 즉 그 靈을 失하여 健忘하게 된다. 모든 氣와 血은 人之神이다.”, “經에 이르기를 靜한 즉 神藏하고 躁한 즉 消亡하는 것이니 靜은 水之體요 躁는 火之用인 까닭이다. 性靜한 則 心存乎中情하고 動則 心忘於外하나 動하지 않으면 忘또한 不己하니 忘不己한 則 存乎中者는 幾希하고 存乎中者 幾한 즉 語後에 便忘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東醫寶鑑』¹⁴⁾에는 “健忘은 上焦의 氣運은 不足하고 下焦의 氣運은 지나쳐서 腸胃는 實하고 心肺가 弱하면 營衛는 下焦에 오래 머물러 제때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이다. 또한 腎이 盛해서 계속 성내면 志를 傷하고 志가 傷하면 前에 한 말을 잘 잊어버린다. 血이 下焦에 합쳐지고 氣가 上焦에 합쳐지면 亂하여져 잘 잊어버린다. 丹溪가 이르기를 健忘症은 精神短少한 것이 많고 또한 痰으로 因한 것도 있다. 載氏가 이르

기를 健忘은 일을 함에 있어 有始無終하고 言談에 首尾가 不分明한 것이다. 健忘은 陟然하여 忘其事하고 心力을 다하여 생각하여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心脾二經 病으로 心之官은 思이고 또한 脾의 官도 思로서 이로써 思慮過多로 因하여 心傷한 즉 血이 耗散하고 神不守舍한다. 脾傷한 則 胃氣衰한다. 健忘의 愈甚 二者는 모두 卒然히 忘하게 한다. 治法은 必히 먼저 養心血하고 理脾土하여 凝神定智之劑로 調理하고 幽閑之處에서 安樂한 가운데 憂慮를 기칠 일과 絶하고 六淫七情을 멀리하면 차차 낫는다. 怔忡症이 오래되면 健忘症이 되는 것은 心과 脾에 血이 적어지고 精神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혹 元氣가 부족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이 있다. 늙어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¹⁵⁾에는 “少陽人은 恒有懼心한데 만약 恐心에 까지 이른즉 大病이 作하여 健忘한다. 健忘은 少陽人의 險證이다.”라고 하였다.

『醫門寶鑑』¹⁶⁾에는 “健忘은 모두 思慮로 心脾를 損傷하여 神血을 耗損하고 不守하여 일어난다. 停飲으로 氣鬱하면 盛痰하는 것은 心脾의 氣가 不舒한 所致이다. 養心血하고 理脾氣, 寧神化痰한다.”라고 하였다.

『醫學心悟』¹⁷⁾에는 “腎者 作強之官 技巧出焉.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腎은 智를 主하므로 腎虛한 즉 智不足하여 喜忘 前言하고, 心藏神하므로 神明不充하면 過事遺忘한다. 心腎不交하여 일어난다. 痰이 있어 火動으로 因하여

痰이 心包에 客하면 神志昏慣하는데 이는 健忘과는 처음부터 다르다. 治法은 心腎不交는 補하고 痰因火動하여 痰客心包한 것은 淸心開竅한다.”라고 하였다.

『類證治裁』¹⁸⁾에는 “健忘은 陟然히 忘하여 盡力으로 思索하여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무릇 人之神은 心에 宅하고 心精은 腎에 依한다. 腦는 元神之府이며 精髓의 海로 실지로는 記憶을 하는 곳이다. 金正希는 무릇 사람은 무엇을 보면 반드시 그 影을 腦에 남기는데 小兒가 善忘하는 것은 腦가 未滿한 것이고 老人이 健忘하는 것은 腦가 漸空하는 것이라 하였다. 初庵은 이로 보면 知人은 記憶을 눈감고 있는 瞬間的으로 追索하는데 腦에 凝神하는 것이다. 따라서 健忘을 治療하려면 반드시 心腎을 交하여 心의 神明이 腎에 通하게 하고 腎의 精華가 腦에 上昇하면 精이 氣를 生하고 氣는 神을 生하여 神이 定하고 氣가 淸하면 遺忘은 自解할 것이다. 精血虧損의 原因으로 善忘하는 것은 培肝腎에 힘쓰고, 思慮過度가 原因이면 養心脾한다. 上盛下虛, 上虛下盛, 心火不降 腎水不升 神明不定, 素有痰飲한 것, 痰迷心竅, 勞心誦讀으로 精神恍惚하여 原因이 되기도 한다. 心氣不足으로 怔忡 健忘한 것도 있고, 稟賦不足으로 神志虛擾한 것도 있다.”라고 하였다.

『徐靈胎醫書三十二種』¹⁹⁾에는 “健忘은 外症이 徒然而忘其事, 作事有始無終, 言談有頭無尾하다 하였는데 이는 心腎이 다 虧하고 精神이 短少하여서 神志가 交通하지 못하여 臨事에 忽忘

하는 것이다. 內因은 求望高遠 하거나 思想無窮하여 心神을 耗散하여 神舍가 空虛하였거나, 天稟이 不足하고 早年에 劉喪하여 心包痰飲하여 擾亂神明하면 모두 腦髓가 消乏하여 轉吟하기만 해도 遺忘한다. 辨證은 心이 腎과 下交하지 못하면 濁火가 神明을 亂하여 臨事하여 動輒하기만 하면 번번이 遺忘한다. 腎이 心과 上交하지 못하면 精氣가 伏하여 不明하므로 前事를 記憶하지 못한다. 脈法은 寸脈이 弦澁한 것은 傷神한 것이고, 尺脈이 軟澁한 것은 傷精한 것이며, 弦數朮澁한 것은 心神不足하고 精血空虛한 것이다. 治法은 滋養心神하고 填補精血하여 陰精上奉하게하여 安其神하고 陽氣下藏하면 定其志한다. 健忘은 당연히 慎精補血하는데 恐懼하면 定志安神한다.”라고 하였다.

『辨證奇聞』²⁰⁾에는 “老人의 健忘은 최근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일 사람이 직전에 한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망연해 하는 것은 健忘이 極에 달한 것이다. 사람들은 心血이 마르게 되면 腎水도 마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릇 心屬火, 腎屬水이고 水火는 相剋이지만, 실은 相剋이면서도 妙하게 相生의 관계에 있다. 心은 반드시 腎에 籍을 두고있어 相通하고 있고 火는 반드시 水에 籍을 두고 濟하고 있다. 따라서 心中의 血을 補益하기만 하고 腎中의 精을 補하지 않으면 血이 비록 驟生하더라도 精은 장차 마를 것이다. 단지 一時的인 健忘은 求할 수 있어도 老年의 不忘을 冀할 수는 없다. 治法은 반드시

시 補心하면서 補腎을 兼하여 神經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自然히
위로 心과 通하게 되어 生液한다. 然
이나 老年의 사람은 陰盡의 상태로 補
陰을 하여도 精이 쉽게 생기지 못한
다. 五臟俱傷으로 困한 健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壯年에 善忘하는 것은
반드시 傷寒하여 大病한 後에 혹은 酒
色過度로 發病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
류의 질환은 주의를 기우려 살펴야하
고 중히 여겨 빨리 다스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겨 오래
방치하면 다른 병으로 변하게 되어 사
망하는 경우도 많다. 내 이를 안타깝
게 여겨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이런 종류의 健忘은 오장이 모
두 상하여 病이 된 것이지 心腎 二經
이 상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治
法은 장차 五臟을 모두 치료한 다음
거듭 心腎을 치료하여서 낮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다만 心腎을 치료하
기에는 胃氣가 너무 약하면 補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強胃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胃氣가 강하
여 약하지 않게 되면 능히 心腎에 精
液을 分布하게 된다. 사람이 氣鬱不舒
하여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처
럼 目前의 일을 결국 記憶하지 못하는
것은 老人의 善忘과 하나인 것 같지만
이 것은 心腎의 虛耗가 原因이 아니고
肝氣의 鬱滯로 困한 것이다. 무릇 肝
氣가 最急인데 肝氣鬱滯하면 急히 氣
가 循行하지 못하므로 肝에 腎氣가 오
면 澁하게 되고 心氣내려오다가도 肝
에 이르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心
腎 서로의 간격이 생기게 되어 兩遺忘

하게 된다. 治法은 반드시 肝氣의 滯
를 疏通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後에
心腎이 相通하게 되니 어찌 目下의 失
記가 있도록 이르겠는가. 然이나 肝氣
의 通은 반드시 거듭 心腎의 氣를 補
하여야 하는데 要點은 補心補腎을 하
는 중에도 肝氣의 鬱滯를 解鬱하면 鬱
滯가 더욱 쉽게 풀어져 重鬱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맺힌 鬱滯가 비록 벌어지더라도
아직 맺히지 않은 鬱滯가 重結에 이르
게 되니 어느 날이 不忘의 때가 되겠
는가. 善忘의 病에 治療 대책이 명확
치 못하면, 開鬱하는 것이 좋고 乾燥
의 失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肝中の
沈滯를 바로 解鬱하려면 肝血을 大旺
하게 한다. 이미 腎水를 취하지 않고
心火를 다스릴 수는 없다. 心肝腎이
하나의 氣로 貫通하면 遺忘할 수 없
다.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隨說隨忘
하여 말을 헛갈리고 아득하여 이어가
지 못하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心腎의 연결이 벌어진 것
이다. 무릇 心腎이 相交하여 통하면
智慧가 생기고 心腎이 相交하지 못하
면 智慧를 잃어버린다. 사람의 지혜는
心腎에서 生하는 것이 아니고 心腎이
相交하여 생기는 것이다. 腎水는 心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러한 즉 지혜가
쉬지 않고 생긴다. 心火는 腎에 바탕
을 두고 있어 지혜가 역시 끊임없이
생긴다. 만약 心이 火亢하면 腎은 火
炎을 두려워하고 감히 心과 相交하지
못하게 되며, 腎水가 竭하면 心은 무
리가 가면서 水乾하여져 腎과 相交하
지 않으려 한다. 心腎이 서로 相交하

지 않으면 疎遠해질 것이고, 필히 서로 相忘한다. 心腎은 夫婦와 같다. 心腎이 自忘에 까지 이르면 어찌 다른 일에까지 기억이 미치지겠는가. 治法은 필히 心腎을 大補하여 相離한 것을 크게 相親하도록하여 자연히 相忘한 것은 相憶하도록하여야 한다. 男子는 필히 女子에서 求하는 것이 相親에 이르기 쉽다. 中히 治心 하려면 바로 心이 먼저 腎과 相交하도록 바라야 한다. 然이나 方中의 妙는 心腎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아닌 藥劑는 하나도 없다. 이는 治心하는 것이 治腎이 아닌 것이 없다. 治心하면 이미 治腎한 것이다. 따라서 腎과 相交하도록 하면 心과 相交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양쪽이 서로 相交하면 相親하며 또한 再忘하지 않으니 治法의 奏功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中醫內科學』³⁾에는 “本病은 心脾不足하고 腎精虛衰로 發生한다. 心脾는 主血하고, 腎은 主精髓하므로 思慮過度로 心脾를 傷하면 陰血이 損耗되고 房事不節하여 精虧髓減하면 腦를 養하지 못하므로 健忘하게 된다. 高年에 神衰하는 것도 이런 症이 많다. 健忘은 항상 失眠과 같이 나타나는데, 두 症狀의 病人, 病症, 治方은 밀접한 관계가 많다. 治療는 一般的으로 心血을 養하고 脾腎을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한다.”라고 하였다.

『沈氏尊生書』²¹⁾에는 “健忘은 心腎不交病이다. 心이 腎과 下交하지 않으면 濁火가 그 神明을 亂하고, 腎이 心과 上交하지 못하면 精氣가 伏하여 不用한다. 火가 上에서 居한 즉 痰이되고

水가 下에 居한 즉 生躁한다. 그러한 까닭에 오직 補腎을 하더라도 때로 上交하도록 하고 養心하는 경우도 善下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神氣가 清明하고 志意가 항상 다스려지므로 저절로 不健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2. 治法과 處方

『醫學入門』¹⁰⁾에는 “心脾血少하며 神虧하여 清氣不足하고 痰火와 濁氣가 上攻한 것에는 引神歸舍丹을, 老年에는 神이 衰한데는 加減固本丸을, 亦有所稟 陰魄不足은 常大補氣血하여야 하는데 定志丸을 사용하며, 三證에 通用 歸脾湯 仁熟散 夢受天王補心丹 壽星丸 蓼棗丸한다.”라고 하였다.

『萬病回春』¹¹⁾에는 “醒脾湯加減, 瓜蒌枳實湯加減, 歸脾湯, 狀元丸, 天王補心丹, 孔子大聖枕中方, 六味丸加味를 사용한다. 그리고 恍惚, 多忘事하는 것은 思慮過度로 인한 것인데 心脾를 勞傷하여 忘事한다. 醒脾湯加減을 사용하며, 痰迷心竅하여 忘事하는 것은 瓜蒌枳實湯加減을 사용한다. 思慮傷心脾하여 건망이 된 것은 陟然而忘其事하는데 歸脾湯을 쓴다. 狀元丸은 오로지 補心生血하고 寧神定志하여 清火化痰하므로 臺閣勤政勞心 燈窗讀書辛苦 并 健忘怔忡不寐 及不善記 而多忘者服之 能日誦千言 胸藏萬卷神効한다. 天王補心丹은 寧心補神益血固精 壯力強志 令人不忘 除怔忡 定驚悸 清三焦 化痰涎 去煩熱 療咽乾 養育心神하는 효능이 있다. 孔子大聖枕中方은 人若多忘事에 遠志 石菖蒲를 加하여 每日煎湯服하면

心通萬卷書한다. 癡狂健忘怔忡失志 及恍惚 驚怖入心 神不守舍 多言不定 一切眞氣虛損 用紫河車. 入補藥內服之大能補心養血寧神 一健忘驚悸怔忡不寐用六味丸加味한다.”라고 하였다.

『東醫寶鑑』¹⁴⁾에는 “怔忡症이 오래되면 健忘症이 되는 것은心和脾에血이 적어지고 精神이 弱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引神歸舍丹을 사용한다. 혹은 元氣가 不足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은 定志丸, 開心散을 주로 쓴다. 만일 늙어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데는 加減固本丸을 사용한다. 加味茯苓湯, 聰明湯, 歸脾湯, 加減補心湯, 天王補心丹, 強心丹, 壯元丸, 加味壽星元, 朱子讀書丸을 쓴다. 引神歸舍丹은 治心風健忘에, 定志丸은 治心氣不足 忽忽喜忘 神魂不安 驚悸恐怯 夢寐不祥한 것에, 開心散은 多忘事에, 加減固本丸은 治老人昏忘及中風後健忘에 蜜丸하고 梧子大 愈風湯 달인 물로 먹는다. 加味茯苓湯은 治痰迷心包 健忘 失事言語如痴한데에 다려 먹는다.

聰明湯은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한다.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마디를 외울 수 있다.”라고 하였다.

『醫學心悟』¹⁷⁾에는 “歸脾湯, 十神湯, 二陳湯 加 竹瀝 薑汁, 兼用 朱砂安神丸한다.”라고 하였다.

『類證治裁』¹⁸⁾에는 “六味丸 加 遠志 五味子是 精血虧損의 원인으로 善忘하는 것은 培肝腎에 주력하는 것으로, 歸脾湯은 思慮過度가 원인이 된 것에 사용하여 養心脾하고, 人蔘養榮湯으로 遠志丸을 복용하는 것은 精神短乏한 것을 兼補氣血하는 것이다. 龍眼湯은

治上虛下盛에, 朱雀丸은 心火不降 腎水不升 神明不定에, 茯苓湯은 素有痰飲한 것에 사용한다. 導痰湯으로 壽星丸을 복용하는 방법은 痰迷心竅로 인한 것에 응용되는데, 導痰湯의 구성은 二陳湯에 加 牛膽南星 枳實한 것이다. 安神定志丸은 勞心誦讀으로 精神恍惚을 치료한다. 辰砂妙香散은 心氣不足으로 怔忡 健忘한데 사용한다. 定志丸, 孔聖枕中丹은 稟賦不足 神志虛擾에 사용한다. 加減固本丸은 年老神衰에, 代抵當丸은 血瘀於內而喜忘如狂에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徐靈胎醫書三十二種』¹⁹⁾에는 “健忘心跳에는 千金茯神湯, 肝虛에는 六味丸 加 酸棗仁 龍齒, 陽明虛에는 使君子 加 木香 砂仁 山藥, 心包虛에는 遠志丸 加 犀角 琥珀 硃砂, 膽虛에는 六君子 加 當歸 柴胡 防風 兼進 加減八味丸을, 膽虛目暗에는 補膽防風湯, 勞傷思慮傷魂에는 鹿角膠를 酒溶多服한다. 陽虛善恐에는 八味丸을, 思慮傷神健忘에는 歸脾湯을 사용하는데 挾痰에는 加 竹瀝 薑汁한다. 精神短少에는 人蔘養榮湯 送 遠志丸하고, 痰迷心竅에는 導痰湯에 加 石菖蒲 木香한다. 上虛下熱에는 天王補心丹을, 水火不交에는 六味丸에 加 五味子 遠志 硃砂 蜜丸服하고, 盜汗健忘에는 辰砂妙香散을, 癆積健忘에는 代抵當丸을, 用藥한다. 만일 思慮傷心하면 歸脾湯을 爲主로하되 挾痰에는 加 竹瀝 薑汁한다. 精神短少에는 人蔘養榮湯을 痰迷心竅 導痰湯 送 壽星丸을, 心腎不交에는 朱雀丸을, 稟弱神揚에는 大聖枕中方을 사용한다. 定志膏는 健忘脈軟澁者를 치료한다.”라

고 하였다.

『辨證奇聞』²⁰⁾에는 “人有老年而健忘者는 生慧湯, 扶老丸을, 五臟俱傷으로 因한 健忘에는 生氣湯, 通鬱湯, 神交湯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中醫內科學』³⁾에는 “思慮傷脾의 증상은 精神疲倦, 食少心悸, 失眠健忘이며, 治法은 補養心脾하는데 歸脾湯을 主方으로 한다고 하였다. 腎精虧損의 증상은 腰酸乏力, 甚則滑精早泄. 舌紅, 脈細數者는 用 六味地黃丸 加 酸棗仁, 五味子, 遠志, 石菖蒲之類한다고 하였고, 만약 陰陽兩虛, 舌質痰, 脈沈細者는 前方에 鹿角膠, 肉從蓉, 巴戟, 紫河車 等品을 가한다.”라고 하였다.

『沈氏尊生書』²¹⁾에는 “思慮過度로 病이 心脾에 있으면 引神歸舍丹, 歸脾湯을, 或素多痰飲에는 茯苓湯을, 或痰迷心竅 言語如痴而多忘에는 導痰湯, 壽星丸을, 或老年神衰而善忘에는 加減固本丸을 사용하는데 中風後善忘에도 사용하며, 或精神短少에는 人蔘養榮湯을, 或上盛下虛에는 養心丹을, 或上虛下盛에는 龍眼湯을, 或心火不降 腎水不升 神志不盛에는 朱雀丸을, 或勤政勞心 讀書刻苦에는 安神定志丸을, 或稟賦陰魄不足 神志虛擾에는 定志丸, 孔聖枕中丹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III. 考察

健忘은 自己가 行한 前事와 前言을 忘却하기 잘하고 事物을 處理할 때 有始無終하여 對話 中에서도 首尾가 不分明한 狀態를 말하며^{2,14)}, 記憶이 精神

및 行動의 모든 다른 부분과는 調和되지 않고 障礙를 받는 것이다⁴⁾.

病因에 대하여 內經에서 언급한 부분 중 하나는 五臟六腑의 虛弱이 모두 健忘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心과 腎이 가장 관계가 깊다고 언급하였다. 『素問·診要經終論』, 『素問·四時刺逆從論』에는 잘못 刺針하여 心神不足, 心虛 또는 陽氣가 竭絶되면 발생한다 하였는데 秋에 春分을 刺하면 肝氣를 傷하는 것이니 心이 그 母를 失하여 神有不足하므로 惕然하게 되어 마침내 善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治療過程에서의 잘못으로 臟腑의 虛實 均衡을 損傷하거나, 臟腑의 母子關係에서도 母臟의 損傷을 초래해도 子臟에 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素問·調經論』에는 氣血의 偏勝으로 氣血이 錯亂하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靈樞·大惑論』에는 上氣不足 즉 上焦의 陽衰로 心肺虛하고 腸胃가 實하여 營衛氣가 不升하여 因한다고 하였다²²⁾. 또한 『靈樞·本神篇』에서는 怒하여 傷腎하면 傷志하게 되므로 健忘이 된다고 하였다⁵⁾.

人體의 臟腑들은 각각 다른 機能的 特徵을 유지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生理的 機能의 종합 관계로서 이로써 人體는 整體 概念의 生命 활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활동의 基礎는 精이 되고, 動力은 氣, 發現은 神이다. 精, 氣, 神은 장부활동의 생산물이고 기능의 量이다. 臟腑와 精氣神은 相互依存의 관계이자 相互促進의 관계이다^{23,24)}.

臟腑의 生理와 病理 현상은 整體機能

의 協助와 失調를 반영하는 것이다.²³⁾ 五臟 중에 心은 君主之官으로 神明을 主管한다. 君主는 최고 영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神明이란 精神, 意識, 思考活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活動은 聰明, 智慧를 반영하는 活動이다. 이러한 이유로 古人들은 心이 인체의 生命 活動을 主宰하고, 臟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五臟六腑는 반드시 心의 통일된 영도 아래 活動을 하여야만 相互協助를 얻어서 정상적 生命活動을 공동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精神, 意識, 思考活動을 통하여 聰明하고 智慧로운 結果를 얻는데 이 모든 것은 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內經에서는 心機能의 重要性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故主明則下安, 主不明, 則十二官危.”라고 하였다. 五臟六腑는 心氣能의 正常 活動 아래에서 통일적인 相互 協調的 生理活動을 수행하며, 비로소 正常的 精神活動이 이루어지고 身體가 건강하게 된다. 만일 心에 病이 發生하면 다른 臟腑의 活動도 또한 영향을 받게되며 病의 狀態가 重해지면 神志失常하여지고 심하면 生命도 危急해진다. 이것을 『靈樞·邪客篇』에는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라고 하였다.²³⁾ 이를 볼 때 心이 五臟六腑 중에서 중요한 位置에 있음을 알 수 있다.

五臟중에 腎은 生髓主骨의 臟이다. 腎은 髓를 만들어서 骨孔 中에 貯藏하

여 骨格을 充양한다. 이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腎生骨髓”라고 하였는데 腎의 이러한 作用은 腎藏精 기능의 일부분이다. 또한 腎은 作強之官으로 伎巧를 出하는데 作強은 動作이 가볍고 힘이 많은 狀態이며, 伎巧란 精巧하고 靈敏한 것이다. 腎이 作強을 주관하고 伎巧를 낸다는 것은 실제로 精을 貯藏하고 骨髓를 만들어 骨格을 主管하는 效果를 이르는 것이므로 腎氣가 旺盛하고 精髓가 充滿한 사람은 精神狀態도 健康하며 旺盛하고 靈敏하며 智慧도 많다. 뿐만 아니라 筋骨이 단단하고 動作에 힘이 있다. 반대로 腎虧하여 精髓가 虛少한 사람은 往往 腰背酸楚하고 骨格이 弱하고 無力하며 精神이 疲困하여 頭昏 健忘한다²³⁾고 하였다.

『靈樞·本神篇』에는 “心之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라고 하여 意와 志의 活動이 人類 特有的 機能으로 出生 이후 계속 발전하는 것이며, 또한 分析綜合活動의 產物이 神明이다²³⁾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말하면, 韓醫學에서 精神活動은 魂, 神, 意, 魄 및 志 즉, 五神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따라서 五臟의 機能이 모두 精神活動에 關여하고 있지만 그 중 意는 心이 憶하는 바로 意識, 記憶이며 志는 意識과 經驗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巢⁶⁾는 風邪가 血氣를 乘하여 陰陽이 不和하면 心虛하게 되어 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질환의 續發性으로도 健忘의 發生이 可能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뒹 등^{3,8,9,11,12,14,16)}은 思慮過度로 傷心하

거나 心脾를 損傷하여도 發生한다고 하였다.

龔 등^{11,17)}은 精神이 短少하여도 나타나고 痰으로 因하여 痰迷心竅하여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역시 健忘과 가장 밀접한 關聯이 되는 것은 心으로 지나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健忘의 原因으로 說明한 것으로, 단순한 心理的 要因뿐 만 아니라 消化器系의 機能을 主管하고 痰을 主管하는 脾의 損傷도 健忘의 原因으로 언급하였다.

李¹⁰⁾는 怔忡이 오래되어도 健忘이 된다고 하였다. 또 李¹⁵⁾는 少陽人 懼心이 恐心에까지 이르면 健忘한다고 하였는데 평소 心理的인 不安이나 心弱한 것이 集中力의 不足이나 健忘을 招來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林 등^{18,19)}은 心腎이 不交하여도 일어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錢²⁰⁾은 사람들은 心血이 마르게 되면 腎水도 마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릇 心屬火, 腎屬水이고 水火는 相剋이지만, 실은 相剋하면서도 妙하게 相生의 關係에 있다. 心은 반드시 腎에 籍을 두고있어 相通하고 있고 火는 반드시 水에 籍을 두고 濟하고 있다하여 心과 腎의 相交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臨床에서도 매우 補心腎의 治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타 小兒가 善忘하는 것은 腦가 未滿한 것이고 老人의 健忘은 腎衰하여 腦가 漸空하여 오는 것으로 보았는데¹⁸⁾, 오늘날 신경학적인 연구에서 synapse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축삭의 측지의 성장과 소멸에 관한 많은 결과가

이를 說明하는 것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治法으로는 心氣不足, 心虛에는 養心血^{3,14,16,19)}, 心脾不足에는 理心脾하는데 理脾土^{3,14,16)}를 하여 脾氣를 調理하는 것이 于先이며, 風邪 또는 思慮過度 등으로 痰飲이 발생하여 怔忡, 痰迷心竅에는 化痰^{16,17)}, 心虛不寧, 恐怖에는 寧神^{9,13,14,19)}을, 腎衰 또는 心腎虛로 因한 水火不交에는 補心腎^{17,19,20)}하고, 老年에 神衰는 大補氣血한다¹⁰⁾ 하였다.

嚴⁹⁾은 思慮過度하면 意舍가 不清하므로 神宮이 不職하여 健忘하므로 治法은 理心脾하여 神意를 淸寧하게 하면 思를 得할 것이라고 하였다.

李¹⁰⁾는 老年에는 神이 衰하여 그 타고난 陰魄이 不足하므로 大補氣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龔¹¹⁾은 精神이 短少한 것은 痰으로 인한 것이 많고, 心氣不足으로 인한 것도 있고, 恍惚, 多忘事하는 것은 思慮過度로 인한 것인데 心脾를 勞傷하여 忘事한다고 하였다. 許¹⁴⁾는 健忘은 上焦의 氣運은 不足하고 下焦의 氣運은 지나쳐서 腸胃는 實하고 心肺가 弱하면 營衛는 下焦에 오래 머물러 제때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이며, 또한 腎이 盛해서 계속 성내면 志를 傷하고 志가 傷하면 前에 한 말을 잘 잊어버린다. 血이 下焦에 합쳐지고 氣가 上焦에 합쳐지면 亂하여져 잘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思慮過多로 因하여 心傷한 즉 血이 耗散하고 神不守舍한다. 脾傷한 則 胃氣 衰한다. 思慮의 愈甚 二者는 모두 卒然히 忘하게 한다. 治法은 必히 먼저 養心血하고

理脾土하여 疑神定智之劑로 調理하고 幽閑之處에서 安樂한 가운데 憂慮를 끼칠 일과 絶하고 六淫七情을 멀리하면 차차 낫는다. 怔忡症이 오래되면 健忘症이 되는 것은 心과 脾에 血이 적어지고 精神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引神歸舍丹을 사용한다. 馥元氣가 不足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은 定志丸, 開心散을 주로 쓴다. 만일 늙어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때는 加減固本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周¹⁶⁾는 養心血하고 理脾氣, 寧神化痰한다고 하였다. 程¹⁷⁾은 心腎不交는 補하고 痰因火動하여 痰客心包한 것은 淸心開竅한다고 하였다.

林¹⁸⁾은 知人은 記憶을 눈감고 있는 瞬間的으로 追索하는데 腦에 凝神하는 것이다. 따라서 健忘을 治療하려면 반드시 心腎을 交하여 心의 神明이 腎에 通하게 하고 腎의 精華가 腦에 上昇하면 精이 氣를 生하고 氣는 神을 生하여 神이 定하고 氣가 淸하면 遺忘은 自解할 것이다. 精血虧損의 原因으로 善忘하는 것은 培肝腎하고, 思慮過度가 原因이면 養心脾하며, 上盛下虛, 上虛下盛, 心火不降 腎水不升 神明不定, 素有痰飲한 것, 痰迷心竅에는, 勞心誦讀으로 精神恍惚, 心氣不足으로 怔忡健忘, 稟賦不足 神志虛擾, 血瘀於內而 喜忘如狂 등 각각의 原因에 따라 處方을 區分하였다.

徐¹⁹⁾는 滋養心神하고 填補精血하여 陰精上奉하게하여 安其神하고 陽氣下藏하면 定其志한다. 또 健忘은 당연히 慎精補血하고, 恐懼하면 定志安神한다 하였다.

錢²⁰⁾은 사람들은 心血이 마르게 되면 腎水도 마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릇 心屬火, 腎屬水이고 水火는 相剋이지만, 실은 相剋이면서도 妙하게 相生의 관계에 있다. 心은 반드시 腎에 籍을 두고있어 相通하고 있고 火는 반드시 水에 籍을 두고 濟하고 있다. 따라서 心中의 血을 補益하기만 하고 腎中의 精을 補하지 않으면 血이 비록 驟生하더라도 精은 장차 마를 것이다. 단지 一時的인 健忘은 求할 수 있어도 老年의 不忘을 冀할 수는 없다. 治法은 반드시 補心하면서 補腎을 兼하여 神經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自然히 위로 心과 通하게 되어 生液한다. 然이나 老年의 사람은 陰盡의 상태로 補陰을 하여도 精이 쉽게 생기지 못한다. 治法은 장차 五臟을 모두 治療한 다음 거듭 心腎을 治療하여서 낫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다만 心腎을 치료하기에는 胃氣가 너무 약하면 補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強胃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胃氣가 강하여 약하지 않게 되면 능히 心腎에 精液을 分布하게 된다. 무릇 肝氣가 最急인데 肝氣鬱滯하면 急히 氣가 循行하지 못하므로 간에 腎氣가 오면 澁하게 되고 心氣내려오다가도 간에 이르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心腎 서로의 間격이 생기게 되어 兩遺忘하게 된다. 治法은 반드시 肝氣의 滯를 疏通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후에 心腎이 相通하게 되니 어찌 目下의 失記가 있도록 이르겠는가. 然이나 肝氣의 通은 반드시 거듭 心腎의 氣를 補하여야 하는데 要點

은 補心補腎을 하는 중에도 肝氣의 鬱滯를 解鬱하면 鬱滯가 더욱 쉽게 풀어져 重鬱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맺힌 鬱滯가 비록 벌어지더라도 아직 맺히지 않은 鬱滯가 重結에 이르게 되니 어느 날이 不忘의 때가 되겠는가. 만약 心이 火亢하면 腎은 火炎을 두려워하고 감히 心과 相交하지 못하게 되며, 腎水가竭하면 心은 무리가 가면서 水乾하여져 腎과 相交하지 않으려 한다. 心腎이 서로 相交하지 않으면 疎遠해질 것이고, 필히 서로 相忘한다. 心腎은 夫婦와 같다. 心腎이 自忘에 까지 이르면 어찌 다른 일까지 기억이 미치겠는가. 治法은 필히 心腎을 大補하여 相離한 것을 크게 相親하도록하여 자연히 相忘한 것은 相憶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沈²¹⁾은 健忘은 心腎不交病이다. 心이 腎과 下交하지 않으면 濁火가 그 神明을 亂하고, 腎이 心과 上交하지 못하면 精氣가 伏하여 不用한다. 火가 上에서 居한 즉 痰이되고 水가 下에 居한 즉 生躁한다. 그러한 까닭에 오직 補腎을 하더라도 때로 上交하도록 하고 養心하는 경우도 善下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神氣가 淸明하고 志意가 항상 다스려지므로 저절로 不健忘하게 된다 하였다.

健忘의 處方에 대하여 怔忡이 오래되어서 心脾血少하며 神虧하여 淸氣不足하고 痰火와 濁氣가 上攻한 것에는 引神歸舍丹^{10,14,18,21)}을 心氣不足으로 인한 怔忡健忘에는 辰砂妙香散^{18,19)}를, 心脾勞傷에는 醒脾湯¹¹⁾, 思慮傷心脾에는 歸

脾湯^{10,11,14,17,18)}, 天王補心丹^{10,11)}을 특히 上虛下熱에 사용하며¹⁹⁾, 狀元丸^{11,14)}, 枕中丹^{11,14,19)}, 千金茯神湯¹⁹⁾등을 사용한다. 老年에 神衰한 것에는 加減固本丸^{10,14,18,21)}, 生慧湯, 扶老丸²⁰⁾으로 치료한다. 所稟陰魄不足에는 常大補氣血定志丸^{10,14,18)}, 開心散¹⁴⁾, 枕中方²¹⁾, 稟弱神揚에 枕中方加 遠志, 石菖蒲¹⁹⁾를 응용한다 三證에 통용할 수 있는 處方에는 歸脾湯 仁熟散 夢受天王補心丹 壽星丸 參棗丸 등이 있다¹⁰⁾. 素有痰飲에는 加味茯苓湯^{18,21)}, 痰迷心竅하여 忘事하는 것은 瓜蒌枳實湯加減¹¹⁾, 二陳湯¹⁷⁾, 導痰湯과 壽星丸을 겸용^{18,19,21)}하거나, 導痰湯가 石菖蒲, 木香¹⁹⁾하여 使用한다.

五臟六腑의 虛損으로 인한 健忘의 治療는 健忘, 驚悸, 怔忡, 不寐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에는 六味에 遠志, 石菖蒲, 人參, 白茯神, 當歸, 酸棗仁 炒를 加하고¹¹⁾, 腎傷하여 恐懼할 때는 枸杞子, 遠志를 加하며¹⁹⁾, 培肝腎하기 위하여 遠志, 五味子를 加¹⁸⁾한다. 六味の 사용경우는 결국 水火不交의 症에 해당되는데 五味子, 遠志, 硃砂를 加¹⁹⁾한다. 肝虛에는 六味에 酸棗仁, 龍齒를 加하고 陽明虛에는 使君子湯에 木香, 砂仁, 山藥을, 心包虛에는 遠志丸에 犀角, 琥珀, 硃砂를, 膽虛에는 加減八味丸이나 六君子湯에 當歸, 柴胡, 防風을 가한 것을, 膽虛하여 눈이 어두우면 補膽防風湯을, 陽虛하여 善恐하면 八味丸을 사용한다¹⁹⁾. 胃氣가 弱한 것에는 生氣湯을, 肝氣不舒에는 通鬱湯으로 鬱滯를 解鬱하는 치료를 한다²⁰⁾. 心火不降, 腎水不升의 水火不交로 인한

神明不定에는 十神丸¹⁷⁾, 朱雀丸^{18,19,21)}, 神交湯²⁰⁾ 등이 사용된다. 기타의 精神短乏에는 人蔘養榮湯^{18,19,21)}을, 上盛下虛에는 養心湯^{18,21)}을, 上虛下盛에는 龍眼湯²¹⁾을 사용한다. 血瘀로 인한 喜忘喜狂에는 代抵當丸^{18,19)}을, 一切 眞氣虛損의 重症에는 紫河車를 補藥에 加味하여 補心養血寧神이 필요하다¹¹⁾. 또한 그 외에도 聰明湯, 加減補心湯, 強心丹, 朱子讀書丸 등이 通用될 수 있고¹⁴⁾, 勤政勞心 讀書刻苦에는 安神定志丸²¹⁾이 사용될 수 있다.

健忘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症狀로 특히 痴呆와 관련하여 老人에 대한 研究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참 자라나는 小兒에게도 그 重要性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근래의 추세를 볼 때 물론 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지력 향상과 관련되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進行되고 있는데 韓醫學의 概念에서 연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 健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考察을 볼 때 健忘의 韓醫學的인 原因, 治法 및 治療方法이 열거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內容과 다양한 病理機轉의 假說로 표현된 면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進行되어야 하며 아울러 記憶에 대한 機轉의 최근 연구에 따른 새로운 韓醫學的 解釋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IV. 結論

健忘에 대하여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健忘의 原因은 素稟不足하거나, 思慮過多, 心傷으로 인한 心虛, 心脾不足과, 素有痰飲하거나 痰迷心竅로 인하여 또는 五臟六腑의 虛損 특히 腎衰, 心腎不交로 인한 水火相交의 斷絶 및 年老, 血瘀 등이 있다.
2. 健忘의 治法에는 大補氣血, 補心養血, 化痰寧神, 理脾土, 補心腎, 培肝腎, 活血祛瘀 등의 方法이 있다.
3. 健忘의 治療에는 補氣血, 寧神에는 引神歸舍丹, 辰砂妙香散, 醒脾湯, 歸脾湯, 天王補心丹, 狀元丸, 枕中丹, 千金茯神湯, 定志丸, 開心散, 枕中方, 老人性, 虛勞에는 加減固本丸, 生慧湯, 扶老丸을, 通용으로는 歸脾湯 仁熟散 夢受天王補心丹 壽星丸 蔘棗丸 등을 사용한다. 五臟六腑의 虛損으로 인한 경우에는 六味地黃湯, 使君子湯, 遠志丸, 加減八味丸, 六君子湯, 補膽防風湯, 八味丸, 生氣湯에 가미하며 肝氣不舒에는 通鬱湯을 사용한다. 水火不交에는 十神丸, 朱雀丸, 神交湯 등이 사용된다. 精神短乏에는 人蔘養榮湯을, 上盛下虛에는 養心湯을, 上虛下盛에는 龍眼湯을 사용한다. 血瘀로 인한 喜忘喜狂에는 代抵當丸을 응용한다. 또한 그 외에도 聰明湯, 加減補心湯, 強心丹, 朱子讀書丸 등이 通用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80, pp.124~127.
2.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4, p.229.
3.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商務印書館, 香港, 1977, pp.166-168.
4. 李文鎬 등, 內科學, 서울, 박애출판사, 1977, pp.259~260.
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5, 119, 124, 143, 146, 224, 345.
6.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245.
7. 太宗 命撰, 太平聖惠方, 서울, 成輔社, 1979, p.102.
8. 吳錫璜, 聖濟總錄, 서울, 翰成社, 1978, 卷43, p.822.
9. 嚴用和, 嚴氏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117.
10. 李挺, 醫學入門, 서울, 崇文社, 1975, p.488.
11.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p.229.
12. 楊禮壽, 醫林撮要, 서울, 黑潮社, 1968, p.245.
13.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柳林社, 1975, 卷2, p.228.
1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 p.98.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1894, p.95.
16.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三協出版社, 1964, p.172.
17. 程國彭, 醫學心悟, 台北, 旋風出版

- 社, 1973, pp.209~210.
18. 林珮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255.
 19. 徐靈胎, 徐靈胎醫書三十二種, 서울, 慶熙大韓醫學科, 1974, 卷上, p.115.
 20. 錢松, 辨證奇聞, 서울, 杏林書院, 1963, p.104.
 21. 沈金鰲, 沈氏尊生書, 臺北, 自由出版社, 1972, p.152~154.
 22. 張介賓, 類經, 서울, 慶熙大韓醫學科, 1974, p.58, 302, 399, 450, 452.
 23. 北京中醫學院主編 : 內經講義, 醫藥衛生出版社, 香港, 1978, pp.21~23, 29~31.
 24.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成輔社, 서울, 1983, p.25, pp.33~34, p.100.